



‘가우디 예술의 영감을 받아 만든 브랜드 미아’

프레시넷 미아 상그리아 화이트 프리잔테

Freixenet Mia Sangria White Frizzante

지역	스페인) 가스띠야 라 만차		
포도품종	마카베오 100%		
알코올	7.5%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6~10℃		
테이스팅 노트	화이트 프리잔테는 밝고 연한 레몬빛 컬러로 약한 스파클링을 지녀 청량감을 배가시킨다. 사랑스러운 레몬과 오렌지의 조화로 풍부한 과실미를 지녔으며 부드러운 기포는 파티나 웰컴주로도 제격이다. 깔끔하고 기분 좋은 미감을 지녔다. 와인메이커의 팁! 부드러운 탄산을 지닌 화이트 프리잔테는 파티의 웰컴주나 분위기를 돋울 때 빠질수 없는 상그리아입니다. 상큼한 오렌지나 레몬과 곁들이면 완벽한 칵테일로 변신한답니다.		
페어링 TIP	스낵/디저트/과일		



제품설명



스페인어로 나의 것(Mine)을 의미하는 미아 와인은 밝고 생기 넘치는 가장 바르셀로나다운 와인이다. 프로젝트가 진행될 당시 와인메이커, 디자이너 등 프로젝트에 연관된 모든 사람이 내 와인이라고 애정을 담아 부르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그대로 브랜드 네임이 되었다. 바르셀로나의 생생함과 활력을 담아내고자 바르셀로나 출신의 여성 와인메이커 글로리아는 특히 발렌시아에서 주로 사용되는 포도를 주 품종으로 양조하였으며, 바르셀로나의 대표 건축가인 가우디의 작품을 영감을 받아 미아는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의 와인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싱그러움을 오롯이 담은 가우디의 꿈을 품은 와인으로 탄생되었다. 상그리아는 스페인의 대중적인 술로서 여러 가지 과일을 넣어 차게 해서 먹는 칵테일의 일종이다. 여름에 즐겨 마시며, 특히 스페인의 남부와 동부 지방에서 많이 마신다. 레드 혹은 화이트 와인에 과일, 탄산수, 주스 등을 넣어 즐긴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누워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